

농약 평가 관리의 국제적인 조화

농약은 본래 많은 적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국제 교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때문에 농약의 등록, 관리 및 평가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연합(UN)등에서 상호간의 협력과 평가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경훈 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평가과 위해성평가연구실

OECD 환경정책위원회 산하에 농약작업반, GLP작업반, 시험지침작업반 등에서 농약관련 회의를 한다. 농약 등록자료 범위, 시험지침 및 평가기술의 국제적 조화, 회원국간 작업 공유,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모니터링 실시, 위해성 저감화 및 최소화 정책도구 개발 촉진, GLP와 시험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 간 농약의 평가와 시험에서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농약작업반은 농촌진흥청, GLP작업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표자로 참여한다. 2011년 우리나라는 2013년까지 3년간 'OECD 농약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매년 1만 달러씩 자발적 기여금을 기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바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FAO와 WHO의 합동으로 설립된 정부간 협의기구로서 농림수산물부에서 대표자로 참여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활동은 농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첨가물 및 오염물질관리,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 제출과 함께 의견 개진하며 수출입국가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분석법 및 시료채취방법 표준화 추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11.4 농산물안전성부 홍무기부장이 Mr Lorents Lorentsen
OECD 환경정책위원장과 MOU 체결광경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는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와 로테르담 협약을 주관하고 있다. 농약부문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 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배출저감 또는 근절 조치의 의무화, 신기술 적용(최적가용기술)의 의무화, 신규 협약 적용 대상물질의 선정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약으로서 사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물질은 DDT 등 12종이 등재되어 있다. 로테르담 협약은 고유해성 화학물질 및 농약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통보승인 대상물질로 지정하며, 대상물질에 대

한 수입당사국 수입승인 및 수입국 지정 요건에 따라 수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㉞